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오테희 편집국장:조선근

다함께 성경을 배웁시다

충헌성경연구원 개강. 3월 6일(토) 오후7시
교사양성부 · 찬양대원양성부 · 주간성경공부

충헌 성경연구원은 오는 3월 6일 오후 7시 베다니홀에서 93년도 제1학기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학기를 시작한다. 매년 봄, 가을로 나누어 학기를 개설하고 있는 충헌성경연구원은 성도들이 주간 중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주간성경공부반과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양성부, 찬양대원 양성을 위한 찬양대원양성부가 있다. 93년도 1학기는 3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5주 동안 모인다.

주간성경공부는 화, 수, 목요일에 각 두 강자씩 총 열 개 강좌 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데 타교인도 수강이 가능하다. 교사양성부는 주일반과 화요일반 중에 택일할 수 있고 찬양대원양성부는 월요일 저녁에 모인다. 장소는 모두 교육관 301호이다. 원서는 오늘(2

월 21일)부터 교육관(교육관 103호)에서 접수한다.

주간 성경공부의 금번 학기내로 신명기, 이사야, 요한복음, 사도행전, 목회서신외에 크로스웨이 제2권, 제3권, 주별 성경연구(생활편), 주별 성경연구(교리편), 인물별 성경연구등 12개 강좌가 있다. 원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로 수강할 수 있는데 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충헌성경연구원은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이 되는 1973년에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바로 터득하여 바르게 실천하는 진실한 생활인과 교회의 봉사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로 19번째 맞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오는 4월 11일, 부활주일 새벽 5시 30분 여의도 광장에서 드러진다.

김창인 원로목사

'93년 부활절연합예배
대회장에 선임

'93년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는 대회장에 김창인 목사를 선임했다. 대회장에 선임된 김 목사는 지난 2월 1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가진 교계 기잔 간담회에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에서는 남북기독인의 영적교류확산을 위해 ▲ 북한 교회 대표 초청 ▲ 상호 상대방을 위한 특별기도 ▲ 예배 헌금을 남북한 교회 연합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 ▲ 부활절 연합예배에 공동 프로그램들

당회장 신성중 목사
비디오선교회장에 선임

당회장 신성중 목사는 지난 2월 15일 소피텔앰버서더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비디오 선교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임됐다. 비디오선교회는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역, 교도소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곳에 비디오를 설치하고 선교용 테이프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일을 하는 선교단체이다.



김영삼 장로 제14대 대통령이 취임

우라 교회 김영삼 장로가 지난 2월 25일(목) 제 14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30여년만에 맞이한 문민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한 김영삼 장로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어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함으로 이 땅에 그 아들로 공평과 정의가 솟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교

회는 안식년으로 귀국하는 수리남의 안식년 선교사의 후임으로 김창수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교회로서는 안식년 실시 자체도 처음이며, 그 후임 선교사 파송도 처음

는 저의 역할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해외사역이 쉽지 않겠으나 저의 파송이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리남선교사/김 창 수 목사

"평생에 한번 해봄직한
귀한 사역의 길"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요. 수속과 준비가 끝나는대로 현지로 가서 안식년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안 선교사가 안식년에 들어가면 후임사역을 해야 하겠지요.

김창수 목사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교구지도, 교회학교 초등6부, 청년3부, 청년2부 등에서 지도, 성경연구원 지도, 선교위원회 지도 등 모든 방면에서 일하였다. 이제 선교사로 나가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할 김 목사를 위해 식구(유은찬 사모와 일곱살 난 준영)들이 건강하고, 현지에 잘 적응하여 후임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형>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3월 4일 충신대학 총동창회 모임에서 설교
· 3월 4일 부활절 연합예배 사무실 개설예배에서 설교

2. 당회장 신성중 목사

· 3월 1-4일 홍콩충헌교회 설립예배 및 부흥회 인도
· 3월 6일 충헌성경연구원 개강예배에서 설교

사랑부 겨울수련회

3월 1일, 교회당에서

교회학교 사랑부(부장 송환창 장로) 겨울수련회가 3월 1일 오전 10시 부터 교회당에서 모인다. 제5회 제로 모이는 금번 수련회는 사랑부 지도교역자인 이홍성 목사가 강사로 수교하며 주제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이다. 오늘 끝나는 청년2부 수련회와 사랑부수련회로 겨울수련회는 막을 내리게된다.



는 일제기에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새로 수리남으로 떠나는 김창수 목사를 잠시 만나 보았다.

—선교사로 파송받게된 데 대한 소감은?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된 것은 아마 작년도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지도를 맡았던 것이 감안된 듯 합니다. 저 자신도 작년도 선교위원회 일을 맡아 보면서 선교적 관심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해외선교는 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이라도 일생에 한번쯤 단기적으로라도 해봄직한 귀한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후임선교사로 나가

—수리남에 대해서는?

수리남은 남미의 북단(북위 5도)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이 한반도의 3/4쯤 됩니다. 화란으로부터 독립한지 20여년이 되며 인구는 50만, 공용어는 화란어, 기온은 연중 고온이나 우리나라 8월 정도의 온도이며 종교는 개신교, 가톨릭 합해 20%정도, 그외에 힌두교, 회교 혼합하고 인종은 아프리카계, 인도계, 인도네시아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출국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충현장단



요나의 표적

(마 12:38-5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마 12:39,40)

신 성 중

<목사·당회장>



1.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은 이 시대를 첫째 악하고 둘째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했습니다(마 12:39). 물론 이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윤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부가 됩니다. 신부들은 몸도 마음도 늘 깨끗해야 합니다. 남편이외의 다른 사랑하는 남자, 소위 정부를 두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외에 바알신이나 아세라신과 같은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모 대학에서 많은 비리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부패는 교육부만의 부패가 아니고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세계 50대 교회의 반수 정도가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부패했다고 하면 이 부패는 바로 교회의 부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권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 성직 매매, 어디 이것뿐입니까? 신학교는 거의 300개에 달하는데 그 신학교에 정말 자격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학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세대가 바로 그런 악한 세대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마 12:39)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앓은병을 일으키는 등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능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다른 이런 표적을 요구한 것이지 정말 저들이 믿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요나를 한번 비교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요나를 모형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모형이며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원형이고 실체입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서 무덤이라고 하는 고기 배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나 헌신의 면에서나 메세지 면에서나 모든 면에 요나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러한 불완전한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재를 뿌리고 배옷을 입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수 많은 이적을 저들에게 베풀고 수 많은 천국 복음을 저들에게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며 더 나아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 남방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여왕을 말합니다. 스바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남쪽에 있는 자기나라에서부터 배에다가 많은 선물을 가득 싣고 지혜를 듣기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은 지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3. 귀신 들린 자의 비유

본문 43절부터 4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 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에 적용시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들이 마구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이나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들은 회개도 하고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키셔서 저들은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종교의 의식 등 많은 것을 고쳤습니다. 즉 집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소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옛날보다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모습은 예수님을 사모 모습인데 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악해지면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가족들

46절부터 5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줍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아들이라 하시리라”(마 12:50)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놓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

님! 어머님과 동생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관계를 부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참으로 가족관계를 중요시 하셨습니다(요 19:26-27).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강조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아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부 다 한 공동체입니다. 손가락을 꼭 찌르면 입에서 아프다고 합니다. 이는 어려운 말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며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이 먹지를 못하고 굶고 있으면 그 구역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어떻게든지 그로 하여금 굶지 아니하도록 구제를 하며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타적인 인간관계, 즉 혈통만을 중요시 하고 동창들끼리, 고향끼리, 성씨가 같고, 우리는 본이 같고 뭐 이런 관계를 청산하고 정말 열린마음을 가지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로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 한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집이 되어야 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더 악해진다는 사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적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신앙이라고 하는 것. 세번째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통하는 말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가지 말만 할 줄 알면 어디서나 통하고 큰 불편이 없다. 첫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다. 쉬운 말 같지만 금방 인나오기 때문에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몸에 베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면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 친구끼리 뭐 그래, 부모 자식간에 뭐 그래, 하면서. 그러나 감사란 말은 가까운 사람한테 먼 사람한테 사 용하면 할수록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다.

다음으로 어디서나 통하는 말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이다.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서로 웃음으로 끝나게 되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생활화하자. 삶의 놀라운 윤택유가 되기 때문이다.

신성중 목사 설교 방송

- 극동방송(FEBC) 1188KHz
토요일 오후 6:30~7:00
- 기독교방송(CBS) 837KHz
주 일 오후 7:00~7:30
- 미주기독교방송(KCBN)
수요일 오전 9:10~10:00
목요일 오후 6:10~7:00

† 탐방 - 새 대통령 김영삼 장로 집에서의 마지막 주일예배 †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참으로 중요한 주일 아침의 한 시간

지난해 12월 20일, 주일 3부 예배에서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 장로 내외(손명순 권사)가 나와서 교우들 앞에 인사를 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에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 특히 경호하기가 어려운 장소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하도록 요청받고 있기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됨으로 정기적인 교회출석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김영삼 장로는 당선인사차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중 목사를 방문하던중 이 문제를 함께 숙고한 끝에 김영삼 장로의 집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김창인 원로목사, 당회장 신성중 목사가 교대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다. 또한 김영삼 장로는 이제 중헌교회만의 장로라는 범주에서 벗어나기에 교계의 지도급 목사들도 이 예배를 인도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조용기(다윗)목사, 김장환 목사도 예배를 인도했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가셔도 이 예배는 계속되며 김창인 원로목사와 신성중 목사가 월 1회씩 나머지는 교계 지도급 목사들이 인도하고, 이 내용을 계속 녹음하여 책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이 일의 모든 책임을 맡은 김차생 장로는 말한다.

이제 사가(私家)에서의 예배도 오늘로 마지막. 역사적인 성적이 짙은 이 장면을 <주간중헌>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2월 21일 주일, 봄비가 부슬거리는 새벽에 김영삼 장로가 마지막으로 사가(私家)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을 취재하기 위해 필자는 새벽부터 부산을 떠나며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김차생 장로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다. 오전 6시 30분 정각, 김차생 장로의 차를 타고 상도터널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 골목길 어귀에 있는 경비 초소에서 김창인 원로목사를 기다리기로 했다. 김차생 장로는 매 주일 이곳을 다니기에 그곳의 책임자인 경감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오전 6시 55분 김창인 원로목사의 차가 왔고 우리와 함께 골목길을 2,3분 정도 올라가 김영삼 장로의 집 앞까지 왔다. 김영삼 장로의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초라한 듯이 보였다(대부분 개축, 신축했는데 김 장로의 집은 그렇지 못해서 그런듯 했다). 미리 연락이 돼있어 우리는 그대로 웅집실로 안내를 받았다. 내방객을 위한 웅집실에는 개인비서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잠시 기다리다가 2층의 개인 웅집실로 안내를 받았는데 이곳이 아마 모든 것이 '상도동'으로 지칭되는 김영삼 장로가 많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역사적인 '상도동'의 심장인 것 같았다. 대여섯평쯤되는 웅집실에는 한쪽에는 8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탁자가 있고, 한쪽에는 소파가 놓여 있었는데 김영삼 장로 내외는 우리를 모두 반갑게 맞아 주었다. 김창인 원로목사 사모와 손명순 권사는 서로 포옹하며 반가움을 표했다. 인사가 끝나고 우리는 그 원형탁자에 둘러 앉았다. 김창인 원로목사 내외분과 김영삼 장로, 손명순 권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온 둘째 딸 김혜숙 김사 부부와 김차생 장로, 필자가 예배의 참석자였다.

오전 7시 15분, 김창인 원로목사가 주일 예배 순서지를 적은 주보를 나누어주고 개회 선언과 묵도함으로 주일예배를 시작했다. 주보는 표지와 예배순서, 광고, 찬송이 인쇄되

가 나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러나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찬송과 기도소리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하고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메시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함으로 이땅에 그야말로 공평과 정의가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해 달



어 있었는데 특히 우리 교회주보에 실린 "금주에 기도해야 할 제목"과 광고내용이 실려 있어서 직접 교회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교회의 사정을 소상히 알 수 있고 함께 교회와 분위기를 호흡할 수 있게 작성되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청와대에서 찬송과 기도소리

리는 기도였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바르게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찬송과 기도소리가 난다고 해서 되는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이런 면에서 주일 아침의 이 한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김영삼 장로가 늘 하나님께 대한 빠른 자세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온 기독교인이 기



▲ 김영삼 장로의 집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순서지

도하던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차생 장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늘 부탁한다고 한다.

사회와 대표기도와 설교를 설교자가 다 맡아서 하는 예배로 김창인 원로목사는 시편 1:1-6의 본문으로 "복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교회 강단에서의 위엄과 엄격함과는 달리 나직나직한 어조로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창인 원로목사의 설교는 또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 김 목사는 말씀을 통해 "권력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린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라.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 말씀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원수, 어떤 위험함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자요, 성공적인 인생이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했다. 설교시간 내내 김영삼 장로는 양손을 꼭 지끼고, 또는 눈을 지긋이 감고 심각하고 신중한 태도로 말씀을 들었고, 손명순 권사는 계속적으로 설교 말씀을 받아 적었다. 김 목사는 설교 후 기도를 통하여 김영삼 장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진력함으로 역사에 빛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헌금과 찬송, 축복기도로 주일예배를 모두 마치니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유명한 상도동의 '시례기국'이 겹들인 간단한 아침식사를 한 후 다음 주일에는 청와대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하고 '상도동'을 떠났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경우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장로들도 몇명씩 함께 참석하고, 소수의 찬양대도 함께해서 찬양순서도 갖고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년만에 문민정치 시대가 열리고 개혁의 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모든 초점이 김영삼 장로에게 맞추어지고 있다. 김영삼 장로의 주일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는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 자신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단순하고 평범한 그러나 오랜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된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깊게 스며있음을 볼 수 있었다.

글·사진/이 형 수(집사, 주간중헌 편집장)

토막소식

◆ 교구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목) 저녁 7시, 당회장과 교구장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각 교구장들이 교구를 섬겨나가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피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개선방안들을 논의하기도 했다. 교구 전산화, 등록자 관리, 새가족 환영회, 교구내 전도회 전도방안 등을 폭넓게 이야기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교구위원회에서 좀더 연구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멘 찬양대에서는 대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보다 연합된 가운데 찬양을 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연습전 오후 3시 ~ 5시까지 교회 본당 뒷뜰에서 남대원들이 모여 친선축구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 충현유치원은 지난 2월 11일(목) 오전 10시 유치원(교육관 212호)에서 1992학년도 수료, 졸업 예배를 드렸다. 32명이 졸업했고 49명이 수료했다.

◆ 충현 장애아동 조기 교육센터는 지난 2월 18일(목), 오전 11시 사랑부실에서 제9회 졸업식



업식을 가지고 졸업생 17명, 수료생 5명을 내었다.

◆ 고등부는 3월 7일 오전 11시 30분 지난 1,2월에 새로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갖는다.

◆ 대학부는 1학기 개강에 맞춰 3월중 캠퍼스별 개강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 청년1부는 3월중 각 반별 친교회와 회원 전체심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난 주간 21일(주일)에는 11교구가 교회에서 새가족환영 및 가족잔치를, 23일(화)에는 19,22교구가 교회에서 전 교구 모임을, 27일(토)에는 21교구가 영락기도원(수유리)에서 예수사랑잔치를 가져 교구식구간에서



로 알아가고 이해하며 새로운 교구 식구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 베드로 11전도회에서는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주제로 <부부 신앙 세미나>를 갖는다. 이 세미나를 통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부부와 온 가족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남전도회 회원들이 부부단위로 친교하는 그런 의도로 세미나를 갖는다.

홍콩충현교회 설립기념예배

당회장 신성종목사
현지에서 부흥회 인도

선교위원회(위원장 하대선 장로)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홍콩충현교회 설립기념예배를 위해 홍콩을 방문하게 된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선교지 방문의 차원을 넘어 선교현장을 눈으로 돌아보고 도한 그곳에서 진행되는 설립기념 부흥회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설립예배 및 부흥회의 일정은 3월 1일 오후 8:00의 설립

기념예배를 필두로 매일 새벽의 새벽기도회와 낮 선교보고회 및 선교사 간증 그리고 저녁의 부흥성회로 계속 진행된다. 강사로 본 교회 당회장 신성종 목사와 새벽기도회 강사로 김양홍 목사, 오후 선교보고회 강사로 김은태 선교사의 현지 선교사들이 수고하게 된다. 특히 당회장 목사와 강사들의 건강과 능력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도들의 각별한 기도가 요청된다.

이로써 본교회는 홍콩을 비롯한 주변 동남아 국가 및 대 중국 선교를 위한 선교 전초기지를 마련한 셈이 되는데 이를 위해 은교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군전도회에서 계룡교회(육군본부교회) 방문

— 건축헌금 1억 1천만원 전달 —

지난 93. 2. 15(월) 군전도회 회장단 및 군전도회를 지원하는 장로(김경철, 최대원, 박영식, 임봉남, 김여순, 이하영) 일행 15명은 계룡교회를 방문하여 건축위원장 김진선 참모차장에게 1억 1천만원(교회 1억원 군전도에 뜻을 같이하는 성도 1천만원)을 당회장을 매산하여 전달하였다.

계룡교회 건축위원장은 감사의 뜻과 함께 박창환 목사(육군군종단장) 인도하에 군부흥회와 충현교회를 위하여 기도회를 가졌다.

계룡교회는 육군본부교회로 개신교 전 교단이 돕기로 한 교회이다.

군전도회에서는 신병으로 입소하는 훈련병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군생활 중에 전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기회라 판단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

기 위하여 군전도회에서는 군전도에 관심있는 분과 현재 직업군인으로 군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건축헌금을 전달하는 군전도회 회원과 전속 중인 계룡교회 전경



선교지로 보내는 소식

싸늘한 환경 속에서도 훈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때마다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육호기 선교사님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께 문안의 글을 드립니다.

이곳의 날씨는 무척이나 싸늘한데 그 곳은 어떠한지요? 선교사님의 서신을 보니 기상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무척이나 싸늘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극우 세력의 폭행, 방화 소식과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은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곳 충현의 성도들은 선교사님께서 그러한 싸늘한 환경 속에서도 훈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때마다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선교위원회 2월 기도회 시간에는 독일 민족을 위해서, 가중된 업무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지하철 사고로 고생을 하고 있는 작은 아들 중승이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이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이번의 어려움이 독일 선교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미약하나마 이곳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질 날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을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993년 2월 21일

선교위원회 지도 김양홍 목사 드림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붙들어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3월 4일 충현대학 총동창회에서 설교,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사무실 개설 예배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3월 1-4일 홍콩충현교회 설립기념예배 및 부흥회 인도
2.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을 성령충만하게 하시며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가 되게 하소서.
4. 3월부터 시작되는 93년도 대심방 위에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7교구 연합모임

오늘 4부 예배후, 만나홀에서

제7교구(교구장 이 훈 장로)는 오늘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만나홀에서 교구 연합모임을 갖는다. 어린이를 포함한 전 교구 식구들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

식을 나누고, 서로 친교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명실공히 교구 식구로써의 마음을 갖고자 해서 이런 모임을 갖는다. 7교구 식구들은 모두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3월 7일 (주일)에는 5교구의 친교 및 새가족모임이 교회에서 열린다.

연락하시면 도와드립니다

봉사위원회 내에 상조회 설치

교회는 초상을 당하여 어려움과 슬픔에 잠겨있는 교우의 가족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장례절차 등을 주선하여 상가에 도움을 주고 친교와 협동 나아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활동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에 봉사위원회 내에 상조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상조에 관한 열매의 업무를 상조회에서 담당키로 했다.

따라서 상조회에서는 장례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일(사망신고에서 입관, 운구, 조문객 접대까지)을 맡아서 봉사하게 된다.

상조회 회장은 박치민 장로(봉사위원회 위원장), 부회장은 김경철 장로(봉사위원회 경조부장)가 맡게 되었다. 앞으로 삶을 향한 가정에서는 생초회에 연락하여 장례에 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조회는 임시로 현 차량봉사실(지하주차장 1층)로 정하고 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락은 주간에는 교회 (552-8200 교화 284번)로 야간에는 400-0134, 271-1313으로 연락하면 된다.